

Luftwald

PRESS RELEASE

빈우혁 BIN WOO HYUK

“Luftwald”

2017. 6. 29 - 7. 29

Artist Reception : 2017. 6. 29, 6 - 8 PM

갤러리바톤은 6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압구정동 전시 공간에서 빈우혁(Bin Woo Hyuk, b.1981)의 개인전 <Luftwald>를 개최한다. 베를린과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감성과 색채감각을 구축한 빈우혁이 신작 회화를 선보이는 자리다.

전시제목 ‘루프트발트’는 실재하는 고유명사나 특정 지명은 아니다.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Lufthansa)와 베를린 남서부에 있는 거대한 삼림 지역인 그루네발트(Grunewald)의 앞뒤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정확한 뜻을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하늘 숲’이라는 의미에 가까운 단어다. 숲과 호수가 함께 있는 풍경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수면에 비친 하늘이 숲과 대조를 이루어 그 모습이 마치 숲이 공기 중에 떠 있는 군락처럼 보이곤 하는데, ‘루프트발트’는 그런 풍경을 뜻한다.



△ Zeltenplatz 59, 2017, pencil and oil on paper, 178 × 252 cm

GALLERY BATON

65, Apgujeong-ro 29-gil, Gangnam-gu, Seoul, Korea, 06005 +82 2 597 5701 info@gallerybaton.com www.gallerybaton.com

그동안 자신이 자주 찾거나 익숙한 숲과 공원을 그렸던 빈우혁은 이번 개인전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숲을 찾아 여정을 떠나야만 하는 예술가의 숙명을 암시한다. 오랜 시간에 걸쳐 빈우혁은 끊임없이 숲을 찾아 나서고, 산책하고, 사색했다. 그리고 그것을 화폭에 옮길 땐 풍경 이면에 어떤 비판이나 의미도 담아내지 않고, 서사적인 요소를 제거해 풍경에 집중했다. 그는 비판이나 풍자, 불필요한 논쟁, 철학적 차용을 자제하고 그리는 대상과 행위 자체에 주목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숲을 찾고 그리는 과정의 반복에 큰 의미를 두었고, 그러한 연장선에서 숲은 “슬프거나 우울한 생각을 억누를 수 있는 곳”으로 느낄만큼 친밀한 존재였다. 그런 빈우혁이 이번 개인전에서는 숲을 떠났다. 정확히는 몇 년간 몰두한 숲의 형상을 그리지 않았다. 비록 작가로서 그의 정체성이나 다름없던 숲을 잠시 내려두고 '루프트발트'라는 다른 풍경을 마주했지만, 대상을 대하는 특유의 시선과 방식, 아득한 분위기는 여전하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여정의 중심에 있다.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풍경인 '루프트발트'를 내려다보듯, 출발 직전 비행기 날개 사이로 보이는 활주로와 이동 중 하늘 위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본다. 어디론가 떠나본 경험이 있는 이에게는 익숙한 풍경일 테지만, 빈우혁의 시선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색다른 것이다. 전시는 작가의 기존 향취가 느껴지는 대형 작품을 포함 다양한 재료와 크기의 신작 회화를 선보이며, 관람객이 작가의 행보에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익숙한 풍경을 뒤로하고 나아가는 작가의 여정과 도착하기까지 과정을 눈에 담을 시간을 제공한다.

빈우혁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수학하고, 갤러리바톤, OCI 미술관과 베를린 글로가우에어 등 개인전은 물론 미국, 일본, 대만, 한국을 오가며 다양한 전시에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아티스트,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한국은행 신진작가 등 우수 수상 경력으로 인정 받았으며, 국립현대미술관, MICA (Maryland, US) OCI 미술관, 삼양사옥 등 국내외 기관 컬렉션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



△ Airag 58, 2017, oil on canvas, 53 × 45 cm



△ Lufthansa 60, 2017, oil on canvas, 53 × 45 cm

GALLERY BATON